국제결혼 이주여성 송편빚기 체험

동두천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뜨거운 호응

동두천시 불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글・문화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17일 우리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빚기 체험의 자리를 마련했다.

동두천시 불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글・문화교실 수강생을 대상으로 17일 우리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 빚기 체험의 자리를 마련했다.

본 행사에 참여한 30여명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자들은 아직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솜씨로 강사님의 말씀에 따라 반죽부터 속기피 만드는 법, 솔잎을 깔고 송편 찌는 방법 등을 배우며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열심히 따라하며, 본인이 직접 만든 송편을 먹어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 일정을 마쳤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문화교실 프로그램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작년 7월 개강하여 1년 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글뿐만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 견학, 역사문화 체험, 건강증진 보건소 방문, 전통예절 익히기, 우리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계획으로 수강생들이 날로 증가하여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타 시군이나 관련기관에서 운영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현동 주민자치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주여성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동두천시의 명실상부한 대표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관・군합동 외래식물 제거 작업

토종식물 번식저해 자연생태계 보호

동두천시는 9월14일 육군 제6321부대와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봉암동 삼육교에서 환경사업소 부근인 소요교까지 위해 외래식물인 돼지풀을 합동으로 제거했다.

동두천시는 9월14일 육군 제6321부대와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봉암동 삼육교에서 환경사업소 부근인 소요교까지 신천변을 따라 위해 외래식물인 돼지풀을 합동으로 제거했다.

이날 행사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종식물의 번식을 저해하며 개화 후 날리는 꽃가루로 인해 인체에 해로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돼지풀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환경보호 의식을 가지고 관・군이 협력하여 행해졌다.

군장병들은 이날 흘린 값진 구슬땀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외래 위해식물을 퇴치하는데 큰 몫을 한다는데 자긍심을 갖고, 환경사랑이 이런 작지만 소중한 일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소속 군부대 주변의 돼지풀 서식 모니터링 및 돼지풀 제거를 위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약속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추석 맞아 연휴기간 종합대책 마련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상황반 운영

양주시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서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07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반을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귀성객 불편해소에 따른 편안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추진, 서민생활안정도모,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훈훈한 명절분위기조성 등을 통해 추석연휴기간 중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이번 22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중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종괄상황반, 재해・재난 반, 수송대책반, 보건의료반, 환경감시반, 청소대책반, 물가・연료 반, 상수도반을 편성하여 종합상황 근무를 실시한다.

시는 이 같은 추석연휴 종합대책의 중점내용은 편안하고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특별수송대책기간으로 정해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에 주력해 나가고 교통량증거에 따른 소통대책은 모범운전자회 연계 현지 지도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다중이용 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인 대형마트, 놀이시설, 사우나 등을 대상으로 시설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위험요인 및 연휴시작 캠페인 등 집중홍보하고 안전점검결과 불안전 시설에 대해 안전조치와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

또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비롯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의료기관 과 약국은 지역단위별 순번제로 운영하며 인근지역의 종합병원 및 1339 응급의료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응급상황 및 대량 환자 발생시 긴급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2007 천사데이 및 제5회 천사마라톤 개최

동두천시 "희망을 향해 우리 함께 달려요"

동두천시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는 10월4일의 숫자를 딴 '1004'에 착안해 매년 10월4일을 전후해 천사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천사운동본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는 비단 천사데이에만 봉사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활처럼 이뤄지는 봉사의 일상화이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자연스러운 나눔, 풀뿌리 봉사활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약 5천 여 명이 모이는 천사데이

두천시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는 10월4일의 숫자를 딴 '1004'에 착안해 매년 10월4일을 전후해 천사데이 행사를 개최한다.(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제4회 천사 하프마라톤대회)

행사에는 이은성(1세 희귀난치 심장질환)등 4명의 난치병환우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천사마라톤이 펼쳐진다.

천사마라톤은 전국마라톤협회에서 주관하고 동두천시,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우유가 함께 후원하며 육군제28사단 장병들과 미2사단 장병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에서는 처음으로 Full코스(42.195km)를 동두천에서 연천군에 걸쳐 실시하여 마라톤을 즐기는 매니아들이 도전해볼만한 코스가 될 것이다.

또한 100여명으로 구성된 천사기동봉사대가 관내의 택시를 이용해 무의탁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의 집에 방문해 집수리봉사, 청소 등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급수지원, 행사진행, 차량안내, 교통정리 등 이날 하루는 모두가 1시간이상씩의 봉사와 선행을 실천할 예정이다.

힘든 달리기지만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난치병아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의 천사마라톤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홈페이지 www.hope1004.org 전화 031-861-1004로 사전에 접수받는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활용하세요!

연천군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이 증명 또는 처리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전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각 기관에서는 신청된 민원을 처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2005년 7월부터 서비스 명칭을 정하여 실시해 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의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시고 민원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수령하면 된다. 접수기관 및 교부기관은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접수하거나 교부 받기 가까운 곳이면 어디나 가능하다.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되며 토지대장 등의 지적공부를 비롯한 즉시민원 145종 및 건의 등의 유기한 민원 150종이다.

군 관계자는 본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이용되길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종합민원실 고객지원분야(839-2135)로 문의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제39회 연천군민의 날 행사 성료

연천군 군민의 화합 도모 이루는 계기

연천군에서는 군민을 위로하고 문화 향유권 신장과 정주의식 고취 및 애향심을 유도하여 선진 문화의식 함양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제39회 연천군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 날 군민의날 '공감' 콘서트는 연천군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공연행사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연을 통한 민관군의 화합을 유도하고 다양한 공연행사 구성으로 모든 계층이 함께 했다.

연천군에서는 군민을 위로하고 문화 향유권 신장과 정주의식 고취 및 애향심을 유도하여 선진 문화의식 함양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제39회 연천군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군민의날 행사는 대행업체로 KBS를 선정하여 총 4부의 형식으로 추진하여 가수 김혜연, 여성5인조 댄스그룹 스톰, 태진아 이루의 공감콘서트, 5사단군악대 특별공연(량현향하출연), 축하불꽃쇼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또한 연천군 홍보대사인 베이비복스리브의 축하공연은 인기가 최고였다.

군 관계자는 모든 계층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나가 된 이번 '제39회 연천군민의 날 행사'를 계기로 군민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양주시 희망 장학재단 후원회원 모집

양주시는 차세대 인재육성과 더불어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비영리 공익법인 양주시 희망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후원회원을 모집한다.

후원 회원은 양주시의 교육발전에 뜻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기업체 등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희망사업에 동참할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yjdream.or.kr)를 통한 온라인 가입과 시청 총무과 내 재단사무국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희망 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은 매년 시에서 출연하는 10억원(2012년부터는 매년 15억원)의 출연금과 회원들이 납부하는 기금(2007년~2011년 1억원, 2012년 이후 2억원)을 포함하여 10년 내에 150억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기금 모집은 연중 수시로 후원 회원가입을 통한 자율기부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금년 6월1일 창립된 이후 현재 회원은 175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조성된 기금은 농협 양주시지부에서 전달한 장학기금 2천만원을 포함하여 5천백여만원에 달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

멸공대대 장병들, 자기 계발 미래에 대한 꿈 키워

육군 25사단 예하 멸공대대 장병들은 매일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자기계발 시간을 통해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작년 12월, 대대장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자기계발 시간은 장병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멸공대대 장병들은 자기계발 시간을 통하여 군 생활동안 목표 의식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대대 장병들은 각자의 목표를 정해놓고 토익, 검정고시, 수능, 헬스, 독서 등 자신의 목표에 매일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또한, 교육대학 출신 간부들이 각각 과목을 맡아 검정고시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병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대장 중령 이태원(45세)은 "2년 동안의 군 복무 이후 사회로 나가게 되는 병사들에게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병사들이 자기개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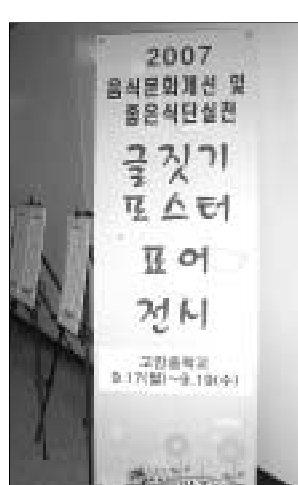
매일 자기계발 시간을 이용하여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김혁진 일병(23세)은 "군에 입대 후 2년 동안 공부할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자기계발 시간을 통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병사들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대대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멸공대대에서는 지난 4월 국가검정고시에 4명이 합격하였으며, 이번 달 1일 8명이 추가로 응시하여 6명이 합격하였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육군 25사단 예하 멸공대대 장병들은 매일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자기계발 시간을 통해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포토뉴스



2007년 음식문화개선 등 우수작 작품전시

양주시는 2007년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공모대회에서 선정된 46점(글짓기, 포스터, 포어)에 대한 우수작품 전시회를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회천3동 소재 고암중학교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사랑의 이웃돕기 쌀 전달식 가져

충주철을 맞아 남면 상수리 한일주유소 유기한 대표가 지난 17일 양주시청을 방문 400만원상당의 이웃돕기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양주서 CPTED 협의회 구성

범죄예방에 대한 중추적 역할 기대

양주경찰서(서장 김사웅)는 9월 14일 경찰서 2층 중 회의실에서 도시개발사업소장, 경민대학교 실용건축학부 이동주 교수, 양주시청 관계자,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도시계획 지구인 옥정 신도시 계획부지의 범죄환경 위해 요소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각 기관과 함께 CPTED 협의회 구성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CPTED란 'Cir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첫 글자를 이니셜로 표기한 것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방안 중 특히, 범죄예방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설계와 건축을 실시하는 것으로 선진국인 영국,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

이날 김사웅 서장은 CPTED의 중요 시행방안을 지자체 및 각 기관에서는 인식을 같이 해야만 시민에 대한 안전 대책을 확보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신도시 개발지역인 주내 고읍지구, 옥정신도시는 향후 약 7만에 가까운 인구 유입이 예상되므로 경찰은 모든 치안력을 동원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힘쓸예정이며, 지자체 및 각 관련 기관에서는 치안대책 마련을 단계적으로 공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